

웹 생태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존 : 무등산을 중심으로

노시훈*

1. 머리말
2. 생태박물관과 웹 생태박물관
 - 1) 생태박물관의 정의와 의의
 - 2) 웹 생태박물관의 정의와 기능
3.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의 제작 내용
 - 1)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의 구성과 주제
 - 2) 무등산 아카이브 구축
 - 3) 무등산 웹 전시 개최
 - 4) 무등산 전자문화지도 제작
4. 맺음말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저 :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프랑스 대서양 연안 지방의 해양 박물관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84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10; 「여수지역 해양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제47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0; 「해양문화유산의 정의와 분류의 문제」, 『해양문화연구』, 제4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국문초록]

1968년 프랑스에서 출현하여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된 생태박물관은 유물의 소장·전시보다 어떤 지역의 자연·문화유산 전체를 ‘본래의 장소에서’ 보존·해석하여 그 지역의 장소적 의미를 찾고 주민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이 갖는 의의는 사라져가는 지역의 집단 기억을 회복하여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은 분산형·야외박물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흩어져있는 지역 유산 전반에 대한 원격 정보 제공과 종합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산을 디지털화하여 기록·보존·해석·활용하는 ‘웹 생태박물관’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무등산이라는 지역을 예로 들어 웹 생태박물관의 가능성과 그 구성 내용·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지역 고유의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유산을 토대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기록·보존)하고, 웹 전시를 개최(해석)하고, 전자문화지도를 제작(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문화유산, 생태박물관, 웹 박물관, 아카이브, 웹 전시, 전자문화지도, 무등산

1. 머리말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태박물관’(生態博物館)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어로 ‘에코뮤제’(écomusée), 영어

로 ‘에코뮤지엄’(ecomuseum)이라 부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가장 먼저 사용된 에코뮤제라는 용어는 국제박물관협회(ICOM :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초대 회장을 지낸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가 그 개념의 토대를 만들고, 1971년에 2대 회장인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이 환경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을 제안하기 위해 ‘생태학’을 뜻하는 프랑스어 ‘écologie’를 줄인 ‘éco-’와 ‘박물관’을 뜻하는 ‘musée’를 합성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출현하였다.

1968년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피니스테르(Finistère) 도 우에상(Ouessant) 섬에 지방자연공원(parc naturel régional)으로 건립된 박물관¹⁾을 최초의 에코뮤제로 보는 것이 보통이나 그 용어를 사용한 박물관으로는 1973년 부르고뉴 지방 손에루아르(Saône-et-Loire) 도에 건립된 르크뢰조몽소레민생태박물관(Écomusée de la communauté urbaine Le Creusot-Montceau-les-Mines)²⁾이 최초이다. 이후 생태박물관은 프랑스 전역과 프랑스어권·라틴계·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캐나다 퀘벡주를 비롯한 북미 지역, 일본·중국³⁾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생태박물관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생태·사회박물관연합(FEMS : Fédération des écomusées et des musées de société)에 가입된 유럽 박물관의 수만 200여개인 것으로 보아⁴⁾ 세계적으로 그 몇 배에 이르는 생태박물관이 운영되고

1) 현재 이 박물관은 ‘니우-위엘라의 집-우에상생태박물관’(Maison du Niou-Huella-Ecomusée de Ouessant)이라 불린다.

2) 이 박물관은 1972년에 ‘인간과산업박물관’(Musée de l’Homme et de l’Industrie)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가 1973년 개명되었다.

3) 중국의 생태박물관에 대해서는 오일환, 「중국의 생태박물관(에코뮤지엄) 형성과 실태에 관한 연구」, 『고문화』, 68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6, 59~75쪽 참조.

4) Cf. <http://www.fems.asso.fr/>.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이나 자연공원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재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박물관들이 그 이름 앞에 ‘자연’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부천자연생태박물관과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그 예이다)과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생태박물관의 ‘생태’는 자연생태와 문화생태 모두를 포함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뜻하기 때문에 이 박물관은 단순히 자연환경과 관련된 박물관을 넘어선다. 또한 생태박물관은 전통 박물관이 특정 항목이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유물을 소장·전시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지역’(territory)의 자연유산과 유·무형의 문화유산 전체를 보존·해석함으로써 그 지역의 장소적 의미를 찾고자 하며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박물관들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의미의 생태박물관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동시 보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박물관의 민주화, 지역 주민에의 권한 부여⁵⁾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태박물관은 유산을 ‘본래의 장소에서’(in situ) 보존·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유산들을 연결하는 분산형 박물관(fragmented museum)인 경우가 많고, 또한 유물의 소장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박물관 건물을 갖지 않는 야외박물관(open air museum)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완적 측면에서 웹상에 지역의 유산들을 한 데 모아 전시하는 공간을

5) Peter Davis, *Ecomuseums : A Sense of Place*, London & New York :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9, p. 239.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웹 생태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이 공간의 구축은 디지털화한 유산을 기록·보존·전시한다는 측면에서 유물의 소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생태박물관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분산되어 있는 유산들에 대한 정보와 그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한 곳에서 제시할 수 있고 실제의 장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도 원격으로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등산이라는 지역을 예로 들어 웹 생태박물관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무엇을 내용으로 그것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아카이브의 구축, 웹 전시 개최,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생태박물관과 웹 생태박물관을 정의하고 그 건립·구축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생태박물관과 웹 생태박물관

1) 생태박물관의 정의와 의의

1973년 르크뢰조몽소레민생태박물관이 만들어진 이후 전 세계에서 이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이 속속 건립되고 발전하면서 출현 초기와는 다른 개념과 기능이 계속 추가되었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생태박물관’이라 불리는 곳들의 공통점을 찾아 그것을 일관성 있게 정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학자들이 각기 다른 정의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프랑스 문화통신부가

1981년 3월 4일 회람에 제시한 ‘생태박물관 헌장’(Charte des écomusées)은 이 박물관을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 아래, 그 환경을 대표하는 자연·문화유산 전체와 계승된 생활양식의 연구·보존·전시·개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문화적 기관”⁶⁾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이 설명을 통해서도 생태박물관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1998년 르네 리바르(René Rivard)는 ‘건물’(building), ‘컬렉션’(collections), ‘전문가’(experts), ‘대중’(public)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는 전통적인 박물관에 ‘지역’, ‘유산’(heritage), ‘기억’(memory), ‘주민’(population)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는 생태박물관을 대비⁷⁾시킴으로써 후자가 전자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잘 보여준 바 있으나 이 대비만으로는 생태박물관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만들어내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정의들 가운데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오늘날 매우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된 생태박물관의 보편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준 정의는 1999년 피터 데이비스(Peter Davis)가 제시한 정의이다. 데이비스는 한 장소를 구성하는 유·무형의 요소들이 그 장소의 의미를 만들어내며 그 주민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제공하는데, 생태박물관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개별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하였다.⁸⁾ 이 정의를 시각화한 ‘목걸이 모델’(necklace model, <그림 1>⁹⁾)을 따르면, 생태박물관이란 ‘경관’(landscape), ‘장소’(sites), ‘지역’, ‘기억’, ‘자연’(nature), ‘전통’(traditions), ‘유산’, ‘공동체’(community)의 결합이자 유산들이 위치한 장소들의 결합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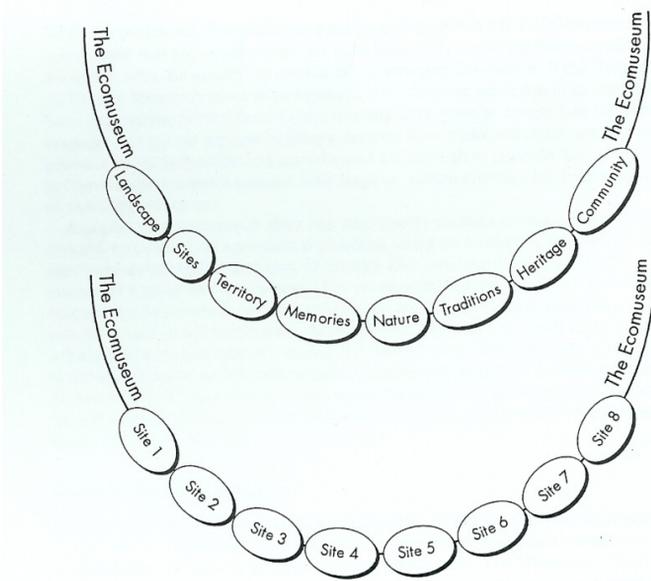
6) Cf. <http://www.fems.asso.fr/>.

7) Peter Davis, *Ecomuseums*, p. 69에서 재인용.

8) *Ibid.*, pp. 238-240.

9) *Ibid.*, p. 240.

할 수 있다.



<그림 1> 생태박물관의 목걸이 모델

또한, 데이비스는 세계 각지의 생태박물관 방문 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그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선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반드시 전통적인 경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은 아닌 어떤 지역의 선택
- ‘본래의 장소에서’의 보존·해석과 연계된 ‘분산된 장소’(fragmented-site) 정책의 선택
- 장소의 소유권이라는 전통적 관점의 포기과 교섭과 협력을

통한 장소의 보존과 해석

- 지역 공동체에의 권한 부여와 지역 주민의 박물관 활동, 문화적 정체성 창조에의 참여
- 학제성(interdisciplinarity)과 전체적 해석의 가능성¹⁰⁾

그렇다면 생태박물관은 어떤 의의를 갖는가? 그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태박물관의 출현 배경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그의 저서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émoire*)』(1984, 1986, 1992)에서, 산업 사회의 발전으로 1960년대 중반 들어 프랑스의 전통적인 농촌 사회가 붕괴됨으로써 천 년 동안 프랑스인의 과거-현재-미래를 연속적으로 이어주던 집단 기억이 거의 소멸되고 그 흔적만이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 물질적·상징적·기능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에 남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¹¹⁾ 농촌문화유산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생긴 것도 이러한 과거와의 단절과 기억의 소멸이라는 위협, 기억의 장소의 보존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과거에 산업 중심지였던 곳들 가운데서도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같은 위협에 직면한 곳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산업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생태박물관은 기억의 장소를 되살림으로써 이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의 집단 기억을 회복하여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할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며[과거에 제철업이 크게 발전했다가 쇠퇴하면서 생태박물관이 들어선 르크뢰조와 스웨덴의 베르그슬라겐(Bergslagen) 지방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생태박물관이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10) *Ibid.*, p. 228.

11) Pierre Nora (sous la dir. de), *Les lieux de mémoire*, 3 vol., [Paris] : Editions Gallimard, 1997, pp. 4699-4700.

광주·화순·담양에 걸쳐있는 무등산은 오랫동안 이 지역 주민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서 주민의 사상과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친 자연·문화 환경으로 자리잡아왔으며 기억의 장소라 할 수 있는 자연·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의 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곳 역시 전통적인 집단 기억의 소멸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생태박물관 건립을 통해 그 기억의 장소를 발굴·보존하여 점점 희미해지는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무등산 생태박물관은 ‘무등산문화권’이라 부를 수 있는 지역 내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연구·기록·보존·전시·개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문화권은 무등산 도립공원(30.23km)과 최근 복원 중인 ‘무돌길’(무등산 둘레길, 50 km) 이내에 한정하지 않고 산자락 너머 지역이더라도 무등산의 자연·문화유산이 영향을 끼친 인근 장소(예를 들어, 광주호 인근과 가사문학권)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 생태박물관은 앞서 언급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동시 보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박물관의 민주화, 지역 주민에의 권한 부여 외에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 운동을 선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 성공적 건립·운동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관련 기관·단체·개인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 된다.

2) 웹 생태박물관의 정의와 기능

웹 생태박물관은 웹 박물관(web museum)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웹 박물관은 엄격한 의미에서 “뮤지엄 오브제들을 근간으로 개발한 독자적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하며, “뮤지엄 오브제가 아니라 뮤지엄 그 자체, 즉 뮤

지엄의 연혁이나 위치, 관람 정보 정도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¹²⁾ 이 정의에 따르자면, 웹 생태박물관은 한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을 근간으로 개발한 독자적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실제 유물을 가상의 유물이 대신하는 온라인상의 박물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웹 생태박물관 역시 ‘생태’박물관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생태박물관의 특징들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데이비스의 지표 가운데 ‘본래의 장소에서의 보존·해석’과 ‘분산된 장소 정책의 선택’은 유산을 웹상에 한 데 모으는 가상의 박물관이라는 점 때문에 반영할 수 없으나 ‘지역의 선택’, ‘장소 소유권의 포기’, ‘교섭·협력을 통한 장소의 보존·해석’, ‘지역 공동체에의 권한 부여’, ‘지역 주민의 박물관 활동, 문화적 정체성 창조에의 참여’, ‘학제성과 전체적 해석’은 모두 반영 가능한 요소들이다. ‘장소 소유권의 포기’와 ‘교섭·협력을 통한 장소의 보존·해석’을 예로 들자면, 웹 생태박물관은 직접 디지털 자료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소장하기보다 유럽 디지털도서관인 유러피아나(Europeana)¹³⁾와 같이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단체·개인을 연결하여 그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실제 생태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전 연구와 준비, 연구 결과와 준비 과정의 검증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실제 박물관의 전 단계로서 가상 박물관을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운영함으로써 그와 같은 요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12) 전봉관, 「웹 뮤지엄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영역」, 이인화교육 외,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울 : 황금가지, 2003, 199쪽.

13) Cf. <http://www.europeana.eu>; 임진희, 「문화자원 통합 서비스 사례 분석 : 유러피아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자원 수집 네트워크의 방향과 과제』,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 구축 및 위탁운영 사업 워크숍 자료집, 2010, 1~28쪽 참조.

웹 생태박물관은 온라인상에 한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기록·보존하고 이를 통해 전시를 기획·개최하여 방문객이 원격으로 검색·열람·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방문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자료 수집, 연구 등에 유용한 종합 정보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가상 박물관은 실제 생태박물관의 시뮬레이션으로서 실험된 내용은 후자를 건립하는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유산의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된 아카이브는 실제 생태박물관 건립 후에도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의 목적은 ‘무등산 문화권 자연·문화유산의 온라인 기록·보존·해석·활용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라 정의할 수 있다. 무등산문화권은 그 둘레만 보더라도 50km를 훨씬 넘어서는 매우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 산재해있는 주요 장소들만을 꼽더라도 수십 곳에 이르며 관련된 주제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¹⁴⁾ 실제 생태박물관이 설립될 경우 이 문화권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문화권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길잡이 역할을 할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이를 통해 실제 생태박물관 건립·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스웨덴의 베르그슬라겐생태박물관(Ekomuseum Bergslagen, 1986년 설립)은 둘레 약 150 km, 면적 약 750 km²에 이르는 지역 전체(7개 지자체로 이루어짐)를 가리키며 유산이 위치한 장소는 약 60곳에 달한다. 이 지역이 무등산문화권과 다른 점은 후자가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장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전자는 중세부터 스웨덴의 철광 생산지대로 이름난 곳으로 유산들이 대부분 ‘제철’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3.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의 제작 내용

1)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의 구성과 주제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의 목적인 ‘무등산문화권 자연·문화유산의 온라인 기록·보존·해석·활용’을 위해서는 무등산 아카이브의 구축, 무등산 웹 전시 개최, 무등산 전자문화지도의 제작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구축은 무등산문화권 자연·문화유산의 수집·기록·보존·관리를 위해, 웹 전시는 유산의 해석을 통해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자문화지도 제작은 이용자의 유산 향유와 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 사이트의 위상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축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디지털 ‘라키비움’(larchiveum)¹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상 정립에 따르자면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의 제작 내용은 무등산의 장소적 의미를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자연·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한 자료를 무등산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이 유산들의 위치와 상호간의 관계를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고, 이 자료와 지도를 토대로 구성한 웹 전시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공간적 범위는 앞서 언급한 무등산문화권의 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그 시간적 범위는 주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주제의 구현 시 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카이브·전시·지도를 관통할 무등산 관련 주제는 마치 다성 음악처럼 매우 다양하기 때문

15) 2008년 미국 텍사스대학교의 메간 윈젯(Megan Winget)이 ‘library’, ‘archives’, ‘museum’을 합성하여 제안한 용어로 ‘복합 수집 기관’(multidisciplinary collecting institution)을 뜻한다.

에 관련 유산이 풍부한 것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지형’(주상절리, 너덜경¹⁶⁾), ‘동·식물상’, ‘물’(水), ‘농업’, ‘유·불·선’(儒佛仙), ‘미술’(회화, 도예), ‘문학’(시, 유산기(遊山記)), ‘건축’, ‘저항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주제들은 다시 더 큰 주제들로 묶여 다채로운 자연 환경, 주민들의 경제 활동 공간, 종교와 사상의 중심지, 예술적 영감의 원천, 저항 공간으로서의 무등산의 장소적 의미를 드러내 줄 수 있다. 관련 장소들은 각각이 독립적인 방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연관된 것들끼리 결합하여 체험로를 형성할 수도 있다.

2) 무등산 아카이브 구축

무등산 아카이브는 무등산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자료만을 수집·기록·보존·관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디지털 자료는 텍스트 파일, 사진·그림 등의 이미지 파일, 다큐멘터리 등의 동영상 파일, 음성·음악·음향 등의 사운드 파일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주제에 따라서 아카이브의 컬렉션을 구성한다. 유물 등의 실물은 수집하지 않으나 향후 무등산 생태박물관을 설립하여 최소한의 유물을 소장하고자 할 것에 대비하여 수집·소장해야 할 핵심 항목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아카이브는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유산의 디지털 자료를 아카이빙 대상으로 한다. 아카이빙 대상 항목은 주제와 직접 관련된 자료인 1차적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설·연구라 할 수 있는 2

16) 주상절리(柱狀節理)는 ‘마그마가 냉각 응고함에 따라 부피가 수축하여 생기는, 다각형 기둥 모양의 금’, 너덜경은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을 뜻한다. 전자의 예인 입석대(立石臺)와 서석대(瑞石臺), 후자의 예인 지공(指空)너덜, 덕산(德山)너덜은 무등산의 특이한 지형을 대표한다.

차적 자료로 구분하는데, 1차적 자료는 수집 가능한 자료 전체를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고 2차적 자료는 참고문헌·자료 형태로 목록화하거나 선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저장한다. 예를 들어, 주제를 ‘무등산 유산기’로 할 때 1차적 자료는 지금까지 발견된 18편의 한문 유산기와 2편의 국문 유산기(<표 1>)이며¹⁷⁾, 2차적 문헌은 그에 대한 해제나 논문, 사진, 영상, 음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선정 주제에 따라 아카이빙 대상 자료의 중심 파일 형태(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아카이브의 컬렉션을 구성한다. 무등산 유산기의 경우 20편의 유산기와 그 번역문이 그 내용인 텍스트 파일이 중심이 된다.¹⁸⁾

	저자	유산기명
한문 유산기	정지유(鄭之遊, 15~16세기)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
	고경명(高敬命, 1533~1592)	『유서석록(遊瑞石錄)』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
	양진영(梁進永, 1788~1860)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
	조봉묵(曹鳳默, 1805~1883)	『유무등산기(遊無等山記)』
	나도규(羅燾圭, 1826~1885)	『서석록(瑞石錄)』
		『서석속록(瑞石續錄)』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서석산기(瑞石山記)』
	홍삼우당(洪三友堂, 1848~?)	『서석록(瑞石錄)』
	이연관(李淵觀, 1857~1935)	『신묘유서석록(辛卯遊瑞石錄)』
	김운덕(金雲惠, 1857~1936)	『서석유람기(瑞石遊覽記)』
	조종덕(趙鐘德, 1858~1918)	『등서석산기(登瑞石山記)』
	이정희(李正會, 1858~1939)	『서석록(瑞石錄)』
양재경(梁在慶, 1859~1918)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	

17) 무등산 유산기 목록은 김대현·김석태·박명희·황금연, 『(국역) 무등산유산기』, 광주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참조.

18) 유산기와 관련된 유사 온라인 아카이브로 한국국학진흥원(<http://www.koreastudy.or.kr/>)에서 구축한 ‘조선시대 유산기’ 사이트(<http://yusan.culturecontent.com/>)가 있다.

	고재봉(高在鵬, 1869~1936)	『유서석기(遊瑞石記)』
	김태석(金泰錫, 1872~1933)	『서석기(瑞石記)』
	양희갑(梁會甲, 1884~1961)	『서석산기(遊瑞石山記)』
	김호영(金鎬永, 1907~1984)	『서석산기(遊瑞石山記)』
국문 유산기	최남선(崔南善, 1890~1957)	『심춘순례(尋春巡禮)』 中
	이은상(李殷相, 1903~1982)	「무등산기행(無等山紀行)」 (『노산문선(鷺山文選)』)

<표 1> 무등산 유산기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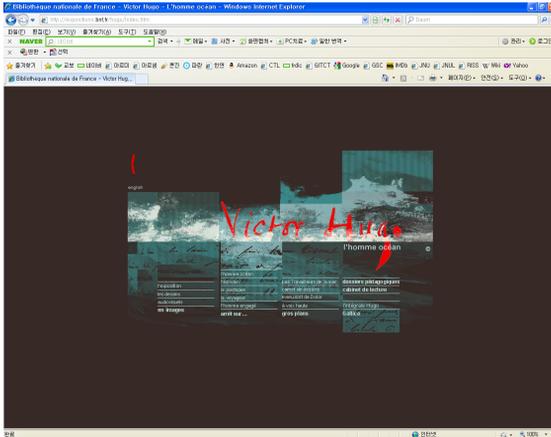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수집된 자료들의 특징과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카이빙 자료의 분류표를 작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분류표는 다른 웹 생태박물관 구축에 대비하여 어느 아카이브에나 적용할 수 있는 범용의 기준에 따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표는 형태와 주제에 따른 격자형 <분류표 1>과 시간과 장소에 따른 격자형 <분류표 2>로 이루어지며, <분류표 2>는 아카이브의 주제에 따라 달리 구성한다. <분류표 1>의 가로축을 형성하는 형태별 분류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유네스코의 구분을 따른다. 문화유산은 유형·무형문화유산으로 나누고, 유형문화유산은 ‘기념물’(monuments),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유적지’(sites)를 포함하는 부동문화유산과 유동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유산은 ‘관습’(practices), ‘공연’(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로 분류한다. 자연유산은 물리적 생성물, 생물학적 생성물, 지질학적 생성물, 천연 명승·구역으로 분류한다.¹⁹⁾ 세로축을 형성하는 주제별 분류는 이

19) Cf.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seventeenth session, Paris, November 16, 1972;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thirty-second session, Paris, October 17, 2003; <http://whc.unesco.org/>.

용자들이 가장 익숙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통상적 분류에 따라 하위 주제를 세분화한다.²⁰⁾

무등산 아카이브는 관련 디지털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기록함으로써 무등산 유산의 종합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온라인 자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집·기록된 디지털 자료를 웹 생태박물관 사이트를 통해 무료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관광 등의 목적으로 무등산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찾는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을 위한 검색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아카이브는 무등산 생태박물관 설립 시 수집·소장할 핵심 유산의 선정 근거와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3) 무등산 웹 전시 개최



<그림 2> 프랑스국립도서관의 빅토르 위고(Victor Hugo) 관련 웹 전시

20) 노시훈, 「해양문화유산의 정의와 분류의 문제」, 『해양문화연구』, 제4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214~215쪽의 표 참조.

웹 전시(web exposition)는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상 전시(virtual exposition)로서 웹사이트의 방문객을 관람객으로 한다. 세계의 주요 도서관·박물관들 가운데에는 웹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그 예로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 가상 전시(expositions virtuelles, <그림 2>)를 들 수 있다²¹⁾], 그것은 이 전시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소장 자료와 유물을 체험·감상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생태박물관들 가운데서도 웹 전시를 개최하는 곳들을 볼 수 있는데[가상 전시(expositions virtuelles)를 열고 있는 르크뢰조몽소레민생태박물관이 그 예이다²²⁾], 이는 유산들을 본래의 장소에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적 의미의 전시를 하지 않는 생태박물관의 한계를 웹 전시가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시가 굳이 필요한 것은 생태박물관이 단순히 유산을 기록·보존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위치한 지역의 장소적 의미를 끊임없이 ‘해석’해야 하는 곳인데, 그 종합적 해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시이기 때문이다. 피에르 노라는 자동 기록 과정에 만족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는 임무를 미래에 떠넘기는 위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²³⁾

무등산 웹 전시는 무등산과 관련된 주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시로서 상설 전시로만 이루어진다. 이 전시의 의미는 단지 수집·기록되는 데 그쳐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는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오고 그에 대한 아카이브의 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21) Cf. <http://expositions.bnf.fr/>.

22) Cf. <http://www.ecomusee-creusot-montceau.fr/>.

23) Pierre Nora, *Les lieux de mémoire*, pp. 30-32, 36.

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아카이브와 컬렉션을 구축·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시를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르크뢰조몽소레민생태박물관은 오프라인 도서관·박물관처럼 해마다 다른 주제로 온라인 정기전을 열고 있다.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에서도 앞서 든 12가지 주제(‘동·식물상’과 ‘유·불·선’을 각각 분리할 경우) 외에 관련 주제를 새로 발굴하거나 세부 주제를 계속 개발하여 전시를 일신하여야만 웹 박물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웹 전시는 아카이브에 기록된 텍스트·이미지·동영상·사운드를 결합하여 구성하고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의 난이도를 조정한다. 전시 내용은 아카이브의 자료들과 하이퍼텍스트로 연결하여 이용자가 관람 중에 관심이 있는 세부 자료를 바로 참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전시는 웹 생태박물관 홈페이지의 화면 중심에 위치시켜 웹 박물관이 전시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나 포털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시를 홍보함으로써 전시 관람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이 할 때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시 주제를 ‘무등산 회화’로 할 경우, 무등산을 기반으로 활동한 허백련(許百鍊), 오지호(吳之湖)와 같은 화가들의 작품과 직접 무등산을 소재로 창작 활동을 한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미술관²⁴⁾과의 제휴는 생태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웹 전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관람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4) 직접 관련된 곳들만 순서대로 예를 들자면, 광주에 위치한 의재미술관(<http://www.ujam.org/>), 오지호기념관(<http://www.ohchicho.co.kr/>), 광주시립미술관(<http://artmuse.gwangju.go.kr/>)이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가상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이 전시를 통해 다양한 무등산 유산에 대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주제 아래 아카이브에 여러 유형의 파일 형태로 기록·보존된 자료들을 토대로 웹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아카이브에 축적된 정보들을 입체적으로 소개·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다른 온라인·오프라인 전시와 연계하여 웹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동 지역의 자연·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4) 무등산 전자문화지도 제작

문화지도는 “한 지역의 공간적 폭과 시간적 깊이에 따라 형성된 사회·문화적 사상을 기호로 그 분포양상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인간이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주어진 공간을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변형·생성시키는 가운데 관련된 문화의 경계·이동, 발전의 축, 적층된 양상 등을 지도에 다 선이나 점, 기호 등으로 소묘하여 자료를 분류·해석·분류하는데 활용하는 도구”이다. 또한 문화지도는 “거시적 미시적 문화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문화요소의 특징적인 지역분할과 인간의 무의식이 공간에 반영됨으로써 이루어진 관념적 경계, 그리고 한 사회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접합·변형된 공간의 제 양상을 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급격한 사회·문화변동이 야기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공간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제 자료를 지도화하는 작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인문·사회과학의 분야에 기초가 되는 수많은 자료를 집적하는데 다대한 역할”을 한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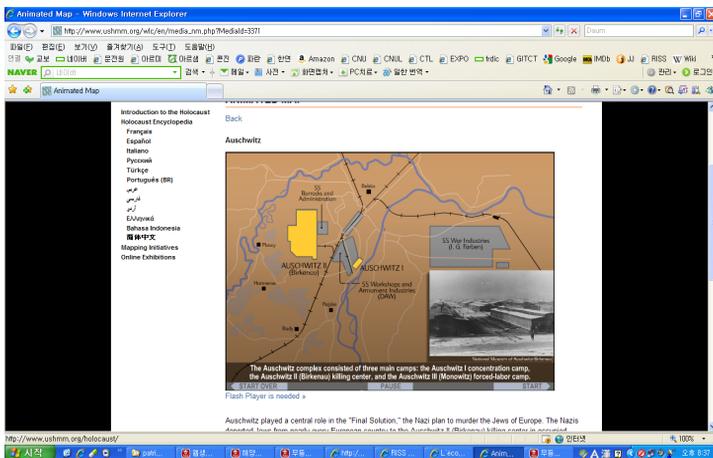
문화지도의 일종인 전자문화지도는 “인간의 총체적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를 디지털 정보매체에다가 유의미하게 기호화한 것”²⁶⁾을 말한다. 전자문화지도는 문서로 된 문화지도와는 달리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구현[내레이션과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한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의 전자문화지도(<그림 3>)를 그 예로 들 수 있다²⁷⁾]할 수 있으며, 시간 개념을 반영[ECAI(Electronic Cultural Atlas Initiatives) 홈페이지에 수록된, 타임맵(TimeMap) 기술을 적용한 한국사 전자문화지도(<그림 4>)가 그 예이다²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해와 흥미를 크게 높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지도의 요소를 아카이브의 자료, 웹 전시의 해설에 링크하여 지도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을 바로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25) 박성용, 「문화지도 : 자료활용방법과 조사내용」, 『비교문화연구』, 제7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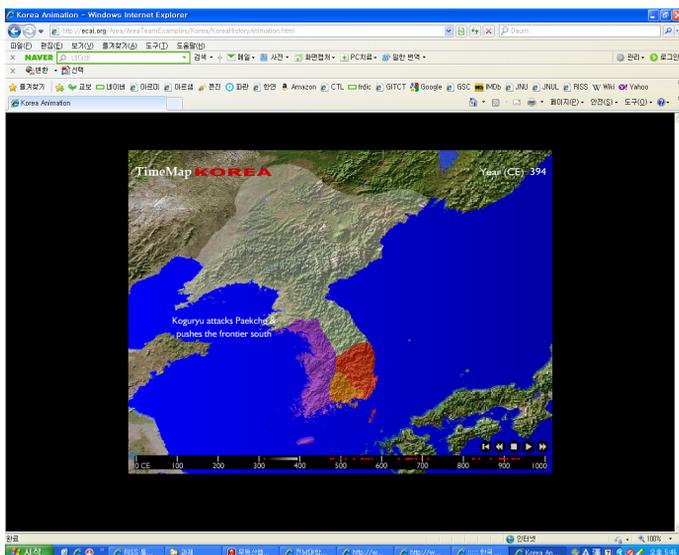
26) 이형대, 「디지털 정보시대의 문화지도 그리기 : 매체 특성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민족문화연구』, 제3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2쪽.

27) Cf. http://www.ushmm.org/wlc/en/media_nm.php?MediaId=3371.

28) Cf. <http://ecai.org/Area/AreaTeamExamples/Korea/KoreaHistoryAnimation.html>.



<그림 3>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의 아우슈비츠(Auschwitz) 관련 전자문화지도



<그림 4> 시간 개념이 반영된 한국사 전자문화지도

무등산 전자문화지도는 무등산 유산의 위치와 경계, 상호관련성을 기호화하여 관련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보여주는 전자문화지도로서 아카이브와 웹 전시의 내용을 사실감 있게 한눈에 보여주고 양자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지도에는 특정 유산이 위치한 지점을 점(아이콘)으로, 관련된 유산들끼리의 관계(길)를 선으로, 유산들이 밀집된 영역을 면(서로 다른 색 등으로 구별)으로 표시한다. 문화지도는 특정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관광지도나 등산지도와 차별화하여 무등산 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그 조사·연구·관람 등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전자문화지도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 지도는 웹에서 실현되는 전자문화지도라는 특성에 맞게 시간 개념을 반영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흥미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무등산 유산기를 다시 예로 든다면, 고경명, 최남선, 이은상의 유산기와 같이 여행 일자와 방문 장소가 상세한 것들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 방문 지점과 관련 유산이 화면에 나타나고 이것들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와 전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3D 화면으로 구현해볼 수 있다. 또한 무등산의 지형을 예로 든다면, 화산 폭발로 주상절리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너덜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전자문화지도를 구상해볼 수 있다.

이 전자문화지도는 무등산 유산의 위치와 경계, 상호관련성을 기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관련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생활양식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지도는 아카이브와 웹 전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제시하

기 때문에 웹 생태박물관의 구성 요소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지도는 이용자의 흥미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웹 생태박물관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도는 무등산문화권으로의 테마 여행을 계획하는 데 안내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지도를 아카이브의 자료들, 웹 전시의 해설과 함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공한다면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지역 탐방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웹 생태박물관을 구축하여 지역 유산을 기록·보존하는 일은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 가상의 유산을 집적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하게 해준다. 첫째, 앞서 그 의의를 살펴본 바 있는 실제 생태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카이브, 웹 전시, 전자문화지도는 자료·검색 센터, 탐방의 길잡이 등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박물관의 부족한 부분을 크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웹 생태박물관 사이트는 박물관 설립 후 박물관 홈페이지로 전환하여 운영 주체의 다양한 활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 개최 등)과 이용자의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홍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게 해준다. 이 가상 박물관 역시 생태박물관으로서 지역 유산의 기록과 보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집단 기억을 복원하고 문화적 정체성

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고양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유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지역과 그 문화의 보존에 대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의 유산 보존, 생태박물관 건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잘 구현된 웹 박물관은 지역 유산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문화·생태관광 프로그램에 활용되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이 웹 박물관을 지역 유산의 보호·관리 및 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 활용한다면 지역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학술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웹 생태박물관 구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문화유산과 그 기록·보존에 대한 전문적 연구,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생태박물관, 웹 박물관, 아카이브, 웹 전시, 전자문화지도 등에 대한 세부 연구는 그 결과의 공유를 통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연구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이 측면의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웹 생태박물관의 구축이 실제 생태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온라인·오프라인의 두 박물관은 서로를 보완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후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전자는 단순히 하나의 웹사이트로만 남을 수 있다. 특히 생태박물관에서 중요한 ‘주민’과 ‘공동체’의 참여와 발전

은 실제 생태박물관이 건립·운영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무등산 웹 생태박물관 구축 과정에서 그 최종 목표인 무등산 생태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준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대현·김석태·박명희·황금연, 『(국역) 무등산유산기』, 광주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 노시훈,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프랑스 대서양 연안
지방의 해양박물관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84집, 한국불어불학회, 2010, 881~908쪽.
- _____, 「해양문화유산의 정의와 분류의 문제」, 『해양문
화연구』, 제4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191~222쪽.
- 박선희, 『무등산 : 무등산의 유래와 전설 경관』, 서울 : 다지
리, 7판, 2008.
- _____, 『광주 1백년 : 개화기 이후 풍물과 세속』, 3책, 서
울 : 금호문화, 1994.
- 박성용, 「문화지도 : 자료활용방법과 조사내용」, 『비교문화
연구』, 제7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3~28쪽.
- 오일환, 「중국의 생태박물관(에코뮤지엄) 형성과 실태에 관한
연구」, 『고문화』, 68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6,
59~75쪽.
- 이형대, 「디지털 정보시대의 문화지도 그리기 : 매체 특성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민족문화연구』, 제38호, 고려
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3, 1~17쪽.
- 임진희, 「문화자원 통합 서비스 사례 분석 : 유러피아나」, 아
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자원 수집 네트워크
크의 방향과 과제』,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 구축 및

- 위탁운영 사업 워크숍 자료집, 2010, 1~28쪽.
- 전봉관, 「웹 뮤지엄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영역」, 이인화·고옥 외,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울 : 황금가지, 2003, 191~207쪽.
- Corsane, Gerard et al., “Ecomuseum Evaluation : Experiences in Piemonte and Liguria,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3, No. 2, 2007, pp. 101-116.
- Davis, Peter, *Ecomuseums : A Sense of Place*, London & New York :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9.
- Nora, Pierre (sous la dir. de), *Les lieux de mémoire*, 3 vol., [Paris] : Editions Gallimard, 1997, «Quarto».
-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seventeenth session, Paris, November 16, 1972.
- _____,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thirty-second session, Paris, October 17, 2003.

<http://artmuse.gwangju.go.kr/>

<http://cafe.daum.net/jeonjunaturemuseum/>

<http://expositions.bnf.fr/>

<http://icom.museum/>

<http://whc.unesco.org/>

<http://www.ecai.org/>

<http://www.ecomuse.go.kr/>

<http://www.ecomusee-creusot-montceau.fr/>

<http://www.ekomuseum.se/>

<http://www.europeana.eu/>
<http://www.fems.asso.fr/>
<http://www.gasa.go.kr/>
<http://www.koreastudy.or.kr/>
<http://www.mudeungsan.org/>
<http://www.ohchiho.co.kr/>
<http://www.ujam.org/>
<http://www.usmmm.org/>
<http://yusan.culturecontent.com/>

ABSTRACT

A Record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s through Web Ecomuseum : the Case of Mountain Mudeung

Noh, Shi-Hun

Ecomuseum which appeared in France in 1968 and widely diffused over the world, is a new type of museum. The purpose of this museum is not to simply possess and exhibit the existing relics, but to discover the locational senses of a territory by *in-situ* conserving and interpreting its entir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s, and to plan the participation of its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ts local community. The significance of this museum can be found in the recovery of disappearing collective memories of a territory, the restoration of the cultural identity of its popula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a underdeveloped area. As the majority of these museums are fragmented or open air museums, an 'web ecomuseum' which makes the remote offering of informations about whole dispersed heritages and their holistic interpretation possible by digitalizing, recording, conserving, interpreting and utilizing related heritages, is necessary.

This paper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web ecomuseum and its constitution contents and methods through the case of Mountain Mudeung area.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latter, this paper suggests a plan which consists of selection of own local themes, construction of digital archives, design of web expositions and production of electronic cultural maps.

Key words : Cultural Heritage, Ecomuseum, Web Museum, Archive,
Web Exposition, Electronic Cultural Map, Mountain
Mudeung